

정보 통신망을 통한 인지 취약성과 우울 증상간의 상관관계 연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노 재 성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Cognitive Vulnerability

- Study using telecommunication network -

Jai-Sung Noh

Department of Psychiatry & Behavioral Sciences,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and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DAS), standardized for the Republic of Korea, were administered through the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network, in an attempt to test the usefulness of this medium in the field of psychiatry, and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vulnerability and depressive symptoms.

Using the results of 303 people who responded to both scales through the Incheon telecommunication network, reliability of and correlation between the two scales were calcul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esults showed high reliability with the Cronbach Alpha being 0.8887 (BDI), and 0.8395 (DAS). The split half reliability coefficients were 0.8515(BDI) and 0.7216(DAS), and after Spearman-Brown correction, 0.8529 (BDI) and 0.7337(DAS).

2) The average scores of BDI and DAS were 14.13 ± 9.07 and 148.58 ± 23.90 , respectively, which correlated with the results of prior studies and the Korean standardization studies, in which the results were 13.01 ± 7.771 and 12.25 ± 7.97 for BDI and 145.32 ± 22.70 for the DAS.

3) Correlations between BDI total score and DAS total score and between BDI total and achievement-related DAS score were significant ($p < 0.05$) but not between BDI total score and dependency-related DAS score. Correlations between achievement-related DAS score and achievement-related BDI score, between dependency-related DAS score and dependency-related BDI score, and between achievement-related DAS score and dependency-related BDI score were significant ($p < 0.05$) but not between dependency-related DAS score and achievement-related BDI score.

This study supports the partial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vulnerability and depressive symptoms, moreover, it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and reliability of psychiatric testing through the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network

Key Words: Beck depression inventory, Depress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서 론

우울증상에 개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DSM-IV⁹와 같은 진단 기준뿐 아니라 Beck Depression Inventory¹¹ (이하 BDI로 약함) 와 같이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에도 반영되어 있다. DSM-IV를 사용하여 주요 우울 삽화를 진단하는 경우, 필수 증상 두 가지 중 하나와 그 외 9개 증상 중 3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주요 우울 삽화의 진단에 필수 증상의 묶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BDI로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같은 점수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증상 목록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한가지는 개인의 인지 취약성(cognitive vulnerability)에 의해서 우울증상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다^{7,8,12,13,17}. 인지 이론가와 정신 역동 이론가들은 우울증에 선행하는 두 가지 성격적 특성으로 성취와 연관된 문제와 의존과 연관된 문제를 가진 성격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10,12,13,21} 성취와 연관된 문제를 가진 사람은 뛰어난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렇지 못해 우울해 지면 무가치감 자책의식과 같은 증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반면 의존과 연관된 문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그렇지 못해 우울해 질 경우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계되거나 타인의 평가와 관계된 우울 증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¹². 저자는 이러한 가설이 정당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 통신망을 사용하였다. 컴퓨터 통신망은 현재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정보 분야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통신망 가입자가 이제 50만에 달하고 있다⁶. 통신망은 그 특성상 적은 비용으로 거리와 장소에 상관없이 정보의 수집과 제공이 양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저자는 첫째 정보 통신망을 정신과적 가설 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둘째 특정 우울증상 군과 인지적 취약성 간에 연관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 통신망인 인천 지역 정보 통신망(Inchon Database and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System 인천 정보 통신 센터, 이하 INDITEL로 약함) 가입자 중 연구 기간 중에 통신망에 접속하여 BDI와

Table 1. Demographic data of sample (N=303)

Item	Group	No	(%)
Sex	Male	245	(80.9)
	Female	58	(19.1)
Age	below 19	138	(45.5)
	20~29	145	(47.9)
	30~39	10	(3.3)
	above 40	10	(3.3)

DAS 두 설문 모두에 응답한 가입자 568명 중 17세 이하 및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303명의 자료이다.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 방법

1) 본 검사에 이용된 통신망의 개요: INDITEL은 1993년 6월에 설립된 통신망으로 총 메뉴 수 2000가지, 데이터 베이스 양 2GB, 월평균 접속 시간 60000시간의 지역정보 통신망이다³. 94년 12월 15일 현재 전체 가입자수는 23541명이다. 운영 환경은 호스트 컴퓨터는 서버로 AVIIION 8500 모델을 사용하고 클라이언트로는 Sun Sparc 10을 사용하며 UNIX를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다. 접속 방식은 Hinet-P망을 이용한 접속과 ISDN을 이용한 접속, 국선을 이용한 접속의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각 시스템은 LAN(Local Area Network)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최대 300명이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94년 12월 총 접속자는 4804명이었다.

2) 설문의 전산화: 우울 정도의 측정을 위해서 Beck 등¹¹을 한국에서 한홍무등⁵이 번안 표준화한 한국판 벡 우울 척도(이하 BDI 로 약함)를 사용하였고, 인지 취약성 측정은 권석만¹이 번안한 DAS를 사용하였다. BDI 문항 및 DAS 문항과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위한 설문을 본 통신망 시스템에 맞게 C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였다.

3) 설문 시행 방법: 설문은 1994년 12월 9일부터 2주 일간 시행하였다. 설문 시행 이전 1주일 동안 통신망상의 게시판을 통하여 본 연구의 방법과 의미를 설명하는 공지사항을 게시하였고, 설문 시작 이후에는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공지사항을 함께 게시하였다. 사용자가 통신망에 접속하면 설문 참여 여부를 묻은후 참여하겠다고 답하면 인구학적 사항에 대한 설문을 제

시한 다음 첫 주에는 BDI의 각 문항을 둘째 주에는 DAS 각 문항을 제시하였다. BDI는 Beck등¹¹이 제안한 순서대로, DAS는 Weissman과 Beck²⁴이 제안한 순서대로 한 문항씩 제시하였으며 이전 문항에 답한 경우에만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설문이 끝나면 응답자에게 BDI 설문은 BDI 총점을 제시했고 DAS 설문은 DAS총점을 제시하였다.

3. 문항의 분류

1) 우울증상의 분류: BDI는 Person등²⁰이 제안한 대로 의존 연관 우울증상과 성취 연관 우울증상의 subscale로 나누었다. 의존 연관 우울 증상에는 BDI 문항 21개 중 Sadness(1번 문항), Crying(10번 문항), Concern about attractiveness(14번 문항)의 세개 문항이 포함되고, 성취 연관 우울증상에는 Feeling of failure(3번 문항), Self-hate(7번 문항), Self-blame(8번 문항), Guilt(5번 문항), Loss of interest(12번 문항), Irritability(11번 문항)등 6개 문항이 포함된다.

2) 인지 취약성의 분류: DAS는 Cane등¹⁴이 제안한 Achievement subscale과 Dependency subscale로 나누었다. Achievement subscale에는 사람은 멋지게 생기고 똑똑하고 돈이 많지 않으면 행복해지기 어렵다(1번 문항), 실수를 하면 아마도 사람들은 나를 전보다 업신여길 것이다(3번 문항),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항상 일을 잘 해야만 한다(4번 문항)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이다(8번 문항), 남들보다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열등하기 때문이다(문항 9), 직업에서의 실패는 한 인간으로서의 실패를 의미한다(10번 문항), 잘 할 수 없는 일은 아예 시작할 필요가 없다(11번 문항),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13번 문항), 절반의 실패는 전부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14번 문항), 당신의 실제 모습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전보다 업신여길 것이다(15번 문항), 나 자신에 대해 최고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나는 이류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20번 문항)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한 분야에서 정말 뛰어 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21번 문항),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22번 문항), 실수하는 경우 낭패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23번 문항) 자꾸 물어 보면 나는 열등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26번 문항)의 15개 문항이 포함된다. Dependency subscale에는 나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나는 행복해 질 수 없다(7번 문항),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16번 문항),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가치는 나에게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다(19번 문항),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몹시 고통스런 일이다(27번 문항),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불행해진다(28번 문항),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 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32번 문항), 나의 행복은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달려 있다(34번 문항),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35번 문항, reverse item),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38번 문항),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되면 불행해지기 마련이다(39번 문항), 다른 사람의 사랑 없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40번 문항 reverse item)의 총 11개 문항이 포함된다.

4. 분석 방법

BDI 및 DAS 각각의 신뢰도 계수를 계산 하였으며 BDI 및 DAS 총점과 각 subscale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고, BDI 총점과 DAS 총점 사이의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의존 연관 BDI 점수 및 성취 연관 BDI 점수와 의존 DAS 점수 및 성취 DAS 점수 사이의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였다.

결 과

1. 각 scale의 신뢰도

BDI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0.8887, 기우수 반분 신뢰도 계수 0.8515, Spearman-Brown식 교정 후 값은

Table 2. Correlation between BDI subscale score and DAS subscale score(n=303)*

	Das total score	Dependency related DSA socce	Achivement related DAS score
BDI total score	.1800 **	.0856 ***	.1310 **
Dependency related BDI score	.1658 **	.1216 **	.1458 **
Achivement related BDI socre	.2156 **	.0510 ***	.1393 **

* Each value represen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 p<0.05, *** not significant

0.8529였으며, DAS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0.8395, 기 우수 반분 신뢰도 계수 0.7216, Spearman-Brown식 교정 후의 값은 0.7337이었다.

2. BDI 및 DAS의 총점 및 각 subscale의 점수의 평균 및 표준 편차

BDI 점수는 14.13 ± 9.07 DAS 점수는 148.58 ± 23.90 이었다.

의존과 연관된 BDI 점수는 2.08 ± 1.89 , 성취와 연관된 BDI 점수는 4.32 ± 3.02 , 의존과 연관된 DAS 점수는 43.20 ± 9.46 성취와 연관된 DAS 점수는 55.61 ± 12.37 이었다.

3. 각 scale 및 subscale 간의 연관(Table 2)

1) 두 scale 간의 상관: BDI 총점과 DAS 총점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r=0.1800, p<0.05$).

2) 전체와 subscale 간의 상관: BDI 총점과 DAS subscale 간의 상관은 성취와 연관된 DAS 점수와 BDI 총점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r=0.1310, p<0.05$), 의존과 연관된 DAS 점수와 BDI 총점 사이에는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DAS 총점과 BDI subscale 간의 상관은 의존과 연관된 BDI 점수와 DAS 총점 간($r=0.1658$) 및 성취와 연관된 BDI 점수와 DAS 총점 간($r=0.2156$)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p<0.05$).

3) 각 subscale 간의 상관: 의존과 연관된 DAS 점수와 의존과 연관된 BDI 점수간($r=0.1216$), 성취와 연관된 DAS 점수와 의존과 연관된 BDI 점수간($r=0.1458$), 성취와 연관된 DAS 점수와 성취와 연관된 BDI 점수간($r=0.1393$) 및 성취와 연관된 DAS 점수와 의존과 연관된 BDI 점수간($r=0.1458$)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p<0.05$) 의존과 연관된 DAS 점수와 성취와 연관된 BDI 점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고 찰

저자는 본 연구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정신과적 가설 검증을 시도 하였으며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를 이전의 연구와 비교 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자료 입수의 방법으로 통신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통신망을 자료 입수에 사용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응답자가 통신망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가, 둘째 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가, 셋째 이러한 방법으로 입수한 자료가 이전의 전통적인 방법

으로 입수한 자료와 비교할 때 적합한가(compatible)이다²³. 이중 통신망 접근의 수월성에 대한 사항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특성으로 볼 때 주로 젊은 성인 남자가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어 전체 일반 인구를 대표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신망의 사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할 때 앞으로 대상 인구의 차이에 의한 중요성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률은 접속자가 자신이 제공하려는 자료가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응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응답률이 이전의 전통적 방법과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문이나 제공하려는 자료가 응답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거 되어야 하며 이는 통신망의 취약한 특성으로 여겨지는 익명성의 보장과 응답에 따르는 보상의 제공을 통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신망 가입자가 통신망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이전의 연구를 볼 때¹⁹ 통신망을 통한 자료의 제공에 가입자가 열심히 참여하리라고는 기대할 수는 없지만 통신망이라는 방식 그 자체에 따른 혐오로 인하여 응답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입수한 자료가 이전의 전통적 방법에 의해 입수한 자료와의 합치 여부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추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BDI Scale의 신뢰도 계수는 이전의 한홍무등⁵의 연구에서 정상 집단의 Spearman-Brown식 교정 후의 기 우수 반분 신뢰도 계수 0.886 및 이민규등⁴의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값 0.87 및 Spearman-Brown식 교정 후의 기우수 반분 신뢰도 계수 0.78과 비교 할 때 높은 수치이며, 한홍무등⁵의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 군의 Spearman-Brown식 교정 후의 기 우수 반분 신뢰도 계수 0.924 및 Beck등¹¹의 우울증 환자 군에서의 기우수 반분 신뢰도 0.86, Spearman-Brown식 교정 후 값 0.93 보다는 약간 낮은 값이다. 또한 DAS Scale의 신뢰도 계수에 있어서도 권석만¹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 0.86 및 기우수 반분 신뢰도 계수 0.82와 비교할 때 유사한 값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BDI와 DAS의 통신망상에서의 실행이 신뢰할 만한(reliable)한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BDI 점수는 $14.139.07$ 였는데 이는 한홍무등⁵의 연구 결과인 13.01 ± 7.71 및 이민규등⁴의 12.25 ± 7.97 보다 높은 점수였으며 DAS 점수 148.58 ± 23.90 는 권석만¹의 연구 결과인 145.32 ± 22.70 보다 약간 높은 점수였다. 이는 본 설문이 피험자가 자신의 단말기에서 검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설문에 대답하는 형식이었음을 상기하면, 동일 대상에서 동일한 설문을 검사자의 존재시와

부재시 시행을 비교 연구에서 검사자의 존재시 피험자가 증상을 낮게 보고한다는 연구에 부합하는 결과이다^{15,18}. DAS와 BDI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이전의 연구에서 Dobson과 Breiter¹⁶는 상관계수가 0.36으로 보고 하고 있으며 권석만¹은 0.38을 보고 하고 있어 이를 본 연구의 결과인 0.1800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상관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질문 모두에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 설문 응답자의 소수이기 때문에 두 설문 모두에 응답한 사람들의 특성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전의 각각의 질문에 대한 연구²와 비교할 때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자료 입수 방법에 의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와 이전의 두 연구와의 차이점은 이전의 연구가 각각의 설문지를 피험자로 하여금 동시에 작성하게 하여 두 설문지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피험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설문의 연관에 대한 암시 없이 각각을 일주일 단위로 시행한 후 분석한 것이 가장 커다란 차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 왜곡이 우울증상 중 성취와 연관된 우울증상과 더욱 큰 연관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성취와 연관된 인지 왜곡은 우울증상 중 성취 및 의존과 연관된 우울증상 모두에 상관이 있으나 의존과 연관된 인지 왜곡은 의존과 연관된 우울증상과 상관이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는 인지 왜곡 중 특정 주제가 특정 주제의 우울 증상과 더욱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인지 왜곡에 의한 우울증상의 부분적 특이성의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전의 우울증상과 인지 취약성간의 상관 관계 연구에서 성취 연관 인지 왜곡과 우울증상 간에는 상관을 발견 하였으나 의존 연관 인지 왜곡과 우울 증상간에는 상관을 발견 하지 못하였다²⁰. 본 연구에서 저자는 의존과 연관된 인지 왜곡이 의존과 연관된 우울 증상과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발견 하지 못했던 우울증상이 인지 왜곡과의 연관에 부분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한점은 본 연구의 방법론 상 통신망을 통한 연구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상 군의 대다수가 통신망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남성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의 연구들이 주로 정신과 외래 방문 환자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한 것과 대상 군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비적응적 인지 체계를 우울증에 대한 인지 취약성이라는 우울증의 인지 이론을 전제로 시행 되었지만 비적응적 인지 체계가 우울증상의 실제적 선행 요건이 아니라 우울증상의 공변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Silverman등²²은 비적응적 인지 왜곡은 우울증상에 의한 이차적 증상이라 하였으며 향후의 전향적 연구에 의해 인지 왜곡이 우울 증상의 선행 요인인지 공변량 인지 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증상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DSM-IV⁹와 같은 진단 기준뿐 아니라 Beck Depression Inventory¹¹(이하 BDI로 약함)와 같은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에도 반영되어 있다. DSM-IV에 의해서 주요 우울 삽화를 진단하는 데는 필수적인 2개의 증상 중 하나와 9개의 증상 중 3개에 부합되는 경우로 진단되는 것처럼 어떤 필수적인 증상의 묶음이 필요하지 않으며 BDI의 경우에도 20개의 목록 중에서 같은 점수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증상 목록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우울증을 설명하는 한가지 이론으로 개인의 인지 감수성(cognitive vulnerability)의 특성에 의해서 우울증상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다^{7,8,12,13,17}. 인지 이론가와 정신 역동 이론가들은 우울증에 선행하는 두 가지 성격적 특성으로 성취와 연관된 문제와 의존과 연관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10,12,13,21}. 성취와 연관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뛰어난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며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아서 우울하여 질 경우 무가치감 자책의식과 같은 증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반면 의존과 연관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우울해 질 경우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계되거나 타인의 평가와 관계된 우울증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¹². 저자는 이러한 가설이 정당함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 통신망을 사용하였다. 컴퓨터 통신망은 현재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정보 분야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통신망 가입자가 이제 50만에 달하고 있다⁶. 통신망은 그 특성상 거리와 장소에 상관없이 양방향의 자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제공이 양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이 가능하다. 저자는 첫째 정보 통신망을 정신과적 가설의 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둘째 특정 우울증상 군과 인지적 감수성간에 연관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결 론

저자는 현재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정보 분야인

통신망의 정신과적 이용의 한 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표준화가 완료된 BDI와 DAS를 통신망 상에서 시행한 후 특정 인지 취약성과 우울증상의 연관 관계를 알아보고자 지역 정보 통신망인 인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BDI 및 DAS를 시행한 후 응답자 3035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각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와 각 설문지의 총점과 Subscale의 평균 및 총점을 계산하고 BDI 총점과 DAS 총점 사이 및 의존 연관 BDI 점수와 성취 연관 BDI 점수 및 의존 연관 DAS 점수 및 성취 연관 DAS 점수 사이의 상관계를 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① 본 연구의 결과 BDI 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는 0.8887, 기 우수 반분 신뢰도 계수는 0.8515, Spearman-Brown식 교정 후의 값은 0.8529 였으며, DAS 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는 0.8395, 기 우수 반분 신뢰도 계수는 0.7216, Spearman-Brown식 교정 후의 값은 0.7337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 주었다. ② 본 연구의 대상의 BDI 점수는 14.13 ± 9.07 로 한국어 판 표준화 연구의 13.01 ± 7.771 및 2.25 ± 7.97 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DAS 점수는 148.58 ± 23.90 로 한국어 판 표준화 연구의 145.32 ± 22.70 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③ BDI 총점과 DAS 총점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고 ($r=0.1800, p<0.05$) BDI scale 총점과 DAS subscale 간의 상관은 성취와 연관된 DAS 점수와 BDI scale 총점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r=0.1310, p<0.05$) 의존과 연관된 DAS 점수와 BDI scale 총점 사이에는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의존과 연관된 DAS 점수와 의존과 연관된 BDI 점수간 ($r=0.1216$) 성취와 연관된 DAS 점수와 의존과 연관된 BDI 점수간 ($r=0.1458$), 성취와 연관된 DAS 점수와 성취와 연관된 BDI 점수 사이($r=0.1398$)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p<0.05$) 의존과 연관된 DAS 점수와 성취와 연관된 BDI 점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저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한 정신과적 가설 검증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으며 인지 왜곡 중 성취와 연관된 인지 왜곡이 우울증상과 큰 상관이 있음과 인지 왜곡과 우울증상 간에 부분적 특이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감사의 말씀

본 연구를 위하여 정보 통신망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주신 최종명씨를 비롯한 인천 정보통신센터 관계자 여러분과 본 설문지의 전산화를 맡아 주신 인하 대학교 김경배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권석만: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 구조, 심리 과학 3: 100-111, 1994
2. 노재성 및 임기영: 정보 통신망을 통한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 척도 시행, 용인정신의학회 2: 142-450, 1995
3. 배해영: 인디텔 저널, 인천, 인천정보통신센터, pp 6, 1994
4. 이민규, 이영호, 박세현, 손창호, 정영조, 홍성국, 이병관, 장필립 및 윤애리: 한국판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표준화 연구 I.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 37차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pp240, 1995
5. 한홍무, 염태호, 신영우, 김교현, 윤도준 및 정근재: Beck Depression Inventory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정상 집단을 중심으로)(1): 신경정신의학 25: 487-502, 1986
6. 허왕준(1994): 기발한 PC 통신의 세계. 시사저널 263: 38-43
7. Abramson LY, Seligman MEP and Teasdale J: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e: Critique and reformation. J Abnorm Psychol 87: 49-74, 1978
8. Abramson LY, Metalsky GI and Alloy LB: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358-372, 1989
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fourth edition(DSM-IV) Washington DC, pp 320-391,1994
10. Arieti S and Bempord J: The psychological organization of depression. Am J Psychiatry 136: 1365-1369, 1980
11. Beck AT, Ward CH, Mendelson M, Mock J and Erbaugh J: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4: 53-63, 1961
12. Beck AT: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pp 102-131, 1976
13. Blatt S: Level of objective repress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 107-157, 1974
14. Cane DB, Olinger LJ, Gotlib IH and Kuiper NA: Factor structure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in a student population. J Clin Psychol 42: 307-309, 1986
15. Carr AC and Ghosh A: Response of phobic patient to direct computer assessment. Br J Psychiatry 142: 60-65, 1983
16. Dobson KS and Breiter HJ: Cognitive assessment of depres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ree measure. J Abnorm Psychol 92: 107-109, 1983
17. Fennel MJ: Depression in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psychiatric problems. (ed. K Hewt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pp 169-174, 1989
18. Lucas RW, Mullin PJ, Luna CBX and McInroy DC: Psychiatrist and a computer as interrogates of patients with alcoholic-related illnesses a comparison. Br J Psychiatry 131: 160-167. 1977

19. Nyce HE and Groppa R: Electronic mail at MHT. Management Technology 1: 65-72, 1983
 20. Pearson JB and Miranda J: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cognitive vulnerabilities of achievement and dependenc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5: 221-235, 1991
 21. Pilkonis PA: Personality prototypes among depressives: Themes of dependency and autonom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 144-152, 1988
 22. Silverman JS, Silverman JA, Eardley DA: Do maladaptive attitude cause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41: 28-30, 1984
 23. Sproull LS: Using electronic mail for data collection in organizational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9: 159-169, 1986
 24. Weissman AN, Beck AT: Developmental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Chicago 1978
-